티베트 비구니 권익 신장 '급변'

여성 불교학 박사학위 '게셰마' 수행자 급증

박정현 객원기자

카트만두에 있는 티베트 불교 비구니 사원 카초 가큐일링(Khachoe Ghakyil Ling nunnery, '콘파' 라고도 알려짐)에는 매우 새로우면서도 까다로운 게셰마(Geshema) 학위를 위해 공부하는 스님들이 몰린다. 이곳은 티베트 불교 최대 종파인 겔룩파(Gelug) 전통에서 비구니 불교 지도자 육성을 위한 중요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게셰마는 티베트 불교에서 여성 출가자 최고 학위, 즉 불교학 박사다. 여기서 '마' 는 티베트어에서 '여성' 을 뜻하는 단어다. 티베트 불교는 과거 남성들만 박사학위를 얻을 수 있었다. 1995년만 해도 비구니들이 불교학 교육에 입문하는 것조차 엄격히 제한됐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가 2012년 여성 승려에게도 이를 허용했다. 이후 비구니 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이는 남성 중심의 불교 역사가 변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불교 매체 트라이시클(Tricycle)은 2월 7일 티베트 불교 비구니 승단을 체험한 제니퍼 라도느(Jennifer Ladonne)의 기행기를 소개했다. 제니퍼는 티베트 비구니 문화를 알리기 위해 미국, 캐나다, 유럽 등으로부터 초청된 32명의 순례자 중 한 명이다.

제니퍼는 "가사를 두른 600명 이상 비구니들이 헌시, 축하, 토론을 위한 장인 사찰에 모였다. 그 사이에서 나와 다른 5명의 서양 순례자들은 합장을 했다"며 "의식이 끝난 후, 우리는 인도 · 네팔 주변의 9개 비구니 사찰로부터 온 600명의 비구니들이 자신들의 불교학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 한 달간 모여 펼치는 연례 불교학 토론회에 초대됐다"고 설명했다.

비구니사원 '콘파' 인산인해
겔룩파 전통서 지도자 육성
박사학위 비구니 지속 배출
수학 · 시험 기간만 약 20년

제니퍼는 "비구니들은 오랫동안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4대 달라이 라마가 이를 허용한 후 맹렬한 기세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제니퍼가 전한 현장 분위기는 '활기' 와 '축제' 그 자체였다. 15명의 비구니 스님이 차례로 일어나 불상 앞에 절을 올린 뒤, 넓은 반원을 만들어 왼발을 구르며 불경을 외웠다. 반대편 토론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도전장' 이다. 분위기가 뜨거워지자 곳곳에 보이는 7살 정도의 어린 비구니 스님들도 토론에 집중했다.


제니퍼 라도느는 네팔 카트만두에 위치한 카초 가큐일링에 순례자로 초청돼 연례 불교학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트라이시클

제니퍼는 "여승들에게 토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들은 단시간에 티베트 불교 여성 교육 발전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치켜세웠다.

게셰마 학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족히 약 17년의 수학 기간이 필요하다. 이후 시험을 치르는 기간만 4년이다. 2012년 게셰마 제도가 도입된 후 약 37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2016년에는 20명의 비구니 스님이 한꺼번에 게셰마 학위를 취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티베트 전통의 미국인 비구니 스님이자 1987년 코판 사원에서 불교에 입문한 에이미 J 밀러 스님은 카초 가큐일링 사원을 "비구니들의 옥스퍼드이자 캠브리지"라고 표현하며 "비구니 스님들은 '배움' 을 온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내가 20~30년 전 알았던 '온순' 한 여성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제니퍼에 따르면 현재 티베트 불교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은 점점 신장하고 있다. 이들은 후세의 비구니 지도자 양성을 위해 '교육' 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판 사원에서는 불교 철학뿐만 아니라 영어, 네팔어, 티베트어 등도 가르친다.

이와 관련 티베트 비구니 교육 프로젝트 미국 지부의 리사 파머 사무총장은 "여성 자치를 위해 견실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비구니들이 자신들의 기관을 운영하고, 미래 성공과 확장 모델을 창조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 "이라고 강조했다.

캔버라 佛心 다질 최초 불탑 '우뚝'

스리랑카 이주민 공동체 발원, 보리수 묘목 이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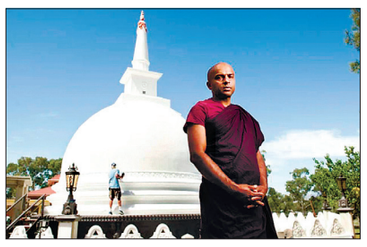
호주 캔버라에 최초의 불탑이 완성돼 화제다. 지난 2월 16일 호주 '캔버라 타임즈' 는 수도 특별자치구(ACT)에 처음 조성된 불탑에 대해 보도했다.

스리랑카 이주민 공동체의 발원으로 조성된 불탑은, 스리랑카 최고의 성지인 아누다라푸라의 불탑을 본 따 조성됐다. 3년에 걸쳐 조성된 불탑은 스리랑카 불교사원의 경내에 자리 잡고 있다. 탑을 설계한 인다수마나 스님은 "내가 배운 기술로 여기 불탑을 조성하게 돼 행복하다"며 탑이 무사히 완공된 것에 대한 기쁨을 보였다.

캔버라 타임즈는 현재 ACT 내에 불교사원이 몇 곳 소재하지만, 불탑을 조성해 모시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전했다. 현재 ACT에서는 스리랑카 사원에 이어 티베트 사원에서도 불탑을 조성하고 있다.

불탑 조성위원회의 나말 가마지 부회장은 "조성에는 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억 원)가 소요됐다. 그러나 사원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의 보시로 완공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스리랑카 이주민들 가운데 금전적인 지원 대신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들을 보시한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어느 가정에서 벽돌을 대신 올렸다는 소문이 나자, 수백 개의 벽돌을 가져와 보시한 이도 있다"고 나말 부회장은 전했다.


최종 작업 중인 불탑과, 설계자인 인다수마나 스님. 사진출처=캔버라 타임즈

또 조성위원회는 300구의 원불을 스리랑카에서 조성해 각 300호주달러(한화 약 25만원)에 권선을 진행했으며, 모두 원만히 회향됐다고 발표했다. 300구의 원불은 모두 새로 완공된 불탑에 모셔질 예정이다.

이번 불탑의 완공에 기해 스리랑카의 아누다라푸라에서 보리수 묘목도 이운해 왔다. 아누다라푸라의 보리수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의 아들 보리수이다. 스리랑카에서는 여법한 도량을 위해서는 불상, 불탑, 보리수의 3가지를 갖춰야 한다. 박영빈 객원기자

'종교 말살' 수준 中 불교 제재

칭하이성 자치구, 사찰서 티베트어 교육 금지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인 중국 칭하이성(青海) 지역의 한 자치구가 불교 사찰에서의 비공식 티베트어 교육을 금지시켰다.

2월 18일 ABS-CBN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자치구는 겨울방학 동안 승려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티베트어 수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최근 중국 내 티베트인 사이에는 사찰에서 비공식적 경로로 티베트어를 배우는 것이 유행이다. 중국 당국의 종교 · 문화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여름방학 기간에도 티베트 학생들이 주말에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 있다"고 ABS-CBN뉴스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정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행위가 명백한 '불법' 이라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사찰이 교육시설로 부적합할 뿐 아니라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이 같은 비공식적 수업이 학부모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당국 조치를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부에 의해 수행되며, 특정 조직 또는 개인이 국가 교육 시스템을 방해할 수 없다"며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찰과 승려들은 법에 따라 처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헌법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 와 '종교의 자유' 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당국의 '중국화' 에 의해 종교활동을 펼칠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인권감시기구 중국지부 관계자는 "티베트어 비공식 교습을 없애겠다는 당국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면서 "문화적 인권과 종교적 자유에 대한 무시 사례의 사후적인 정당화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국 당국은 불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는 추세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위구르족 및 이슬람교도 약 100만 명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중국화에 따른 재교육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러시아 최대 채색 마애불 조성

부랴트 공화국 대형바위에 불교 복원하며 불상 조각

시베리아의 높은 바위에 부처님이 나투셨다. 33m 높이의 채색 마애불은 지역 불자들에겐 신앙의 거점이자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지난 2월 16일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는 러시아에 세워진 특별한 불상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의 부랴트(Buryat) 공화국은 티베트 불교를 믿는 몽골계 주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다. 러시아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부랴트 주민들은 금지됐던 불교를 복원하기 위해 힘써왔다. 파괴된 사찰들이 복원됐고, 젊은 스님들은 인도로 유학을 떠나며 불교가 점차 부흥하고 있다.

부랴트 공화국의 동부, 코린스키(Khorinsky) 지역의 바얀골(Bayan Gol) 숲에 있는 바얀 콘고르(Bayan Khongor)바위는 오래전부터 성지로 여겨져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왔다. 2015년에는 바위 앞에 불상과 탑 3기를 모신 작은 법당이 조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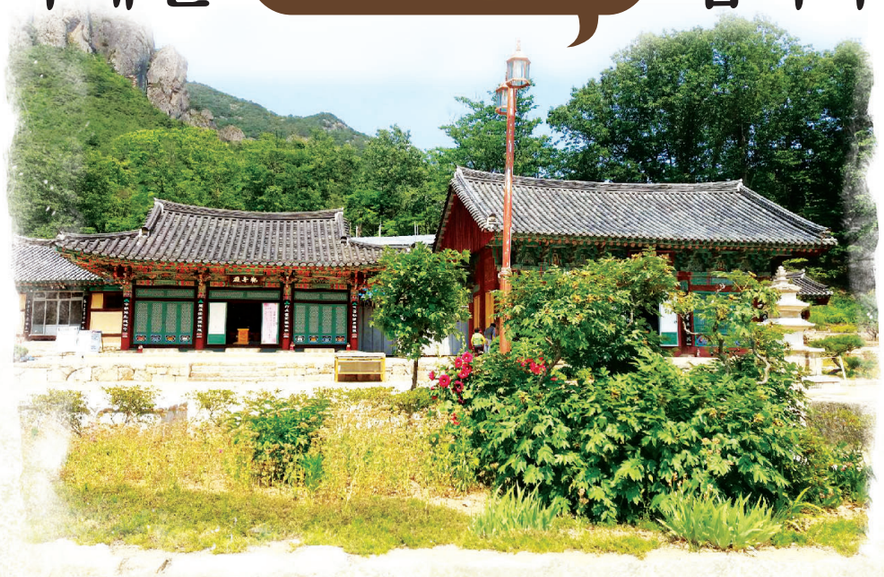

바얀 콘고르(Bayan Khongor) 바위에 새겨진 높이 33m의 석가모니 마애불. 사진출처=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그러나 바얀골의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바위 자체에 부처님을 조성하기로 결의했고, 불교지도자인 옐로 린포체에게 상의했다. 옐로 린포체는 은사인 둘바 함보 린포체가 부랴트 출신인 것을 인연으로 1993년부터 부랴트의 수도 울란우데에 강원을 세우고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옐로 린포체는 바얀골 주민들과 상의하고, 직접 바얀 콘고르 바위를 순례한 후 석가모니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자연환경에 최소한의 영향만을 주기 위해 마애불은 음각으로 윤곽만 새겨서 채색하고, 채광을 위해 바위의 정상부분만을 제거했다. 마애불은 2016년 9월 10일에 옐로 린포체를 법주로 점안식이 봉행됐으며, 당시 러시아 각지에서 몰린 4천여 명의 불자들이 함께했다.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는 석가모니불상은 33천을 상징, 33m 높이로 새겨졌다. 옐로 린포체의 시자인 텐진 스님은 "처음엔 이렇게 큰 불상을 조성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바위를 실측하는 과정에서 바위의 높이가 55m인 것이 밝혀졌다. 그 후에 회의를 걸쳐 33m의 불상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마애불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보통 불상이나 탑은 남쪽을 바라보게 조성한다. 그러나 이 불상은 특별히 모스크바와 다른 러시아의 대도시들을 바라보게 조성했다. 이것은 부처님이 바라보시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고, 자연재해가 사라져 평화가 깃들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불상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HOT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때(Timing)를 찾아라!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8기
• 성공과 실패의 시기, 자신만의 때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과정!!
• 암기가 아닌 원리 위주 공부, 전 과정 마스터까지 추가비용 없이 무료 반복 수강
• 과학화된 역학, 현대사주명리학 마스터, 검증 가능한 작명법, 성명학 마스터
• 명리진로적성 상담자 자격증 취득(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예측학, 논리로 푸는 사주학 '석하명리' 마스터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선천적성 및 성공시기 분석 용이
• 왕초보도 1년이면 OK, 왕초보부터 고수까지, 성공을 위한 필살기!!
• 개강 : 3. 6(水) 부터 매주 수 18:30 ~21:00 (1년 과정)



주임교수 석하(奭廈)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 재)하원정미래학회, 한국성명작명학회(KNS) 회장
• 한국동양미래예측학회(KOFS) 회장
•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및 국제미래학회 동양학 위원장
•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GFCA) 회장
• 국제뇌교육대학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및 풍수리지(+관상)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 성공과 실패 시기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창시
유튜브 채널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교수의 때를 찾는 지혜〉
☎ 02-585-0079

자연과학 풍수지리, 풍수도 논리로 푼다.
동국대 G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위과정 제5기
• 대한민국 풍수지리학계 큰 스승, 최고의 교수진 직강
주임교수 : 소재학 교수, 지도교수 : 최명우 교수, 정경연 교수
최병용 교수, 세준 교수, 지종학 교수, 노승우 교수
• 평생 허비하며 수만금 들여도 답 안나오는 풍수지리,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닌, 제대로 된 원리 위주 공부
• 개 강 : 3월 11(月)부터 월 18:30 ~21:00 (1년 과정)